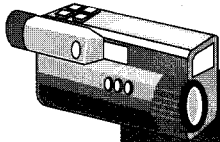


제18회 韓·日·臺 3국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

안전·믿을 수 있는 농산물 안정공급에 앞장



제19회 예비회의의 내년 5월, 본회의의 2004년 가을중 일본서 갖기로

한국·일본·대만의 농약업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약산업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신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농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18회 한·일·대 3국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가 지난 11월 6일부터 사흘동안 대만 Taipe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농산물 수입자유화 및 곡물자급률 저하, 경작면적의 감소 등 어두운 농업환경으로 인해 3국의 농약공업이 혹독한 시련기를 맞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 개발이 국제적 과제인 현실에서 환경과

조화한 농업과 지속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각국의 농업정책인 만큼 농약업계가 이의 실현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李炳萬 회장 등 14명이, 일본 24명, 주최국인 대만 25명 등 총 63명의 대표와 많은 옵저버들이 참석했다.

李회장은 본회의의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농업은 농경지가 줄고 있는 데다 자유무역론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식량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해

은 우리 농약산업은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대체수단 발달 및 보이지 않는 압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조류를 되돌려 놓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농약업계에서도 앞으로는 활성이 높고 잔류가 적은 약제, 저독성이며 생물농축성이 낮은 약제의 개발 등 환경을 고려한 농약, 기존 제형의 변경 및 유효성분의 저함량화, 신규제형 개발 등 환경친화적 제형개발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농약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넓혀 현실의 막연한 불신의 벽을 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역설한 뒤 "이번 회의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농업 및 농약산업의 현실을 냉철히 조명해 보고 각종 최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공동이익은 물론 작물보호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국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3국 대표단의 자기 소개와 함께 각국의 농업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농업정세보고(상보 참조) 발표가 한국, 대만, 일본순으로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崔運鴻 상무이사(KCPA), 대만은 簡品淑 총간사(TCPIA), 일본은 玉川 寛治 상무이사(JCPA)에 의해 각각 발표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3국 자매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T. Murata 전 일본농약공업회 회장에 대한 3국회장 공동명의로 공로패 전달식도 있었다.

아울러 제19회 차기회의는 일본농약공업회 주관으로 일본에서 열리며 예비회의는 2003년 5월 중에, 본회의는 2004년 가을경에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두 편의 특별강연회가 있었는데 S. T. Tsai 대표이사(듀폰 타이완)는 「듀폰의 지속적 성장과 농약산업 전망」에 대해, Long Shing Liao 수석 전문위원(농업위원회)은 「대만의 생물농약 개발현황」에 대하여 각각 주제를 발

표했다. 이어 열린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 창립 40주년 기념 연회(宴會)에는 대만의 전통 민속공연과 함께 3국 대표단 및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인사 등 1백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국 7명, 일본 5명, 대만에서 8명의 위원 및 각국의 읍저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약개발」이란 주제로 발표 및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농업정세보고

일본-JCPA

농업현황

농업구조 동향 및 농작물 작황



일본의 농경지면적은 2000년에는 4백83ha이며 총면적은 3천7백78만7천ha이다. 경지면적은 매년 도시화 등에 따라 감소되어 과거 10년간

41만3천ha가 감소했다. 반면 총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어 경지율도 10년간 14.1%에서 13.0%로 1.1% 감소했다.

농가수는 2000년에는 3백12만호이고 총세대수는 4천7백3만1천호이다. 과거 20년간 농가수는 1백54만1천호가 감소되었으나 총세대수는 1천1백1만6천호가 늘어 농가수는 12.9%에서 6.6%로 약 반으로 줄었다.

농가인구는 2000년까지는 1천3백45만8천명이며 총인구는 1억2천6백91만9천명이다. 과거 20년간 농가인구는 7백90만8천명이 줄었으나 총인구는 9백85만9천명이 늘어 농가인구 비율은

18.3%에서 10.6%로 7.7% 감소하였다.

농림수산업 등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1999년의 농림수산업은 7조6천2백46억엔이고 국내총생산은 5백12조5천3백1억엔으로 나타나 과거 3년동안 농림수산업 및 국내총생산도 감소하는 경향이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올 8월 15일 현재 벼농사 작황은 조·만생지대 및 조기재배지대 모두 「약간 좋음」으로 되어있으나 북해도, 동북부지방에는 8월에 저온과 일조부족에 의한 등숙불량과 관서이서 지방에는 고온장해가 염려되고 엘리뇨 영향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8월 15일 현재). 과수의 경우 사과는 수확량이 2% 감소가 예상되고 감귤은 격년결실의 해이지만 같은 해였던 2000년에 비해 착과수가 많고 과실비대도 양호한 편이다.

병해충 발생상황

장마철 이후에도 날씨가 좋아 도열병은 적게 발생되었고 고온다습 영향으로 벼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은 「많음」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일본지역에서 「약간 많음」으로 되었다. 벼멸구는 현재까지 비래량이 적으며 반점미노린재 발생은 전국적으로 「약간 많음」으로 예상된다.

7월 29일 이후 11개 도도부현에서 「주의보」가 나오고 있다. 과수에 대해서는 과수노린재류의 발생이 관동이서 지역에서 「많음」으로 예상되며 고온에서 활발하여 수확기까지 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애류는 감귤의 일부지역에서 「약간 많음」이 예상된다.

농약 출하 상황

일본농약공업회의 통계에 의하면 본년도(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 출하량이 20만6천톤(전년대비 94.2%), 출하금액은 2천7백99억엔(전년대비 95.3%)이다. 수량, 금액 모두 감소했다.

사용분야별 수량 및 금액

분야별	수량		금액	
	6월말(천톤)	전년대비(%)	6월말(억엔)	전년대비(%)
수 도	93	92	1,059	96
과 수	24	95	497	95
채소·전작	68	98	893	98
기 타	21	91	349	87
합 계	206	94	2,799	95

종류별 수량 및 금액

종류별	수량		금액	
	6월말(천톤)	전년대비(%)	6월말(억엔)	전년대비(%)
살충제	73	93	820	97
살균제	46	96	697	96
혼합제	25	94	279	99
제초제	55	94	904	93
植調劑	7	97	99	93
합 계	206	94	2,799	95

행정동향 및 업계 대응

지속성 높은 농업생산 방식

1999년 7월 「지속성 높은 농업생산 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금융 및 세제조치를 강구함에 따라 환경과 조화된 농업생산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성 높은 농업생산방식」으로는 「흙 가꾸기」「화학비료 저감기술」「화학농약 저감기술」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생산방식이며 종래 농법의 일부이다.

농정의 근원적 개혁 추진

이런 가운데 일본의 농림수산업을 둘러싼 정세도 경작면적을 줄인 정책, 채소 등 농산물수입 증가, BSE(광우병) 발생, 식품의 허위표시 문제, 환경문제 등 그 중에서도 식료의 안전성논의 등등 비상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은 「식품」과 「농업」의 재생플랜을 발표하고 「소비자로의 중심을 옮김」 등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BSE문제와 관련 법 정비와 행정조직 구축, 식품의 행적 시스템 도입,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표시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국내생산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신선하고 맛있는 국내농산물을 공급하는 「플랜트 일본」 전략을 책정하고 일본의 「식문화」와 「地產地消」의 특색 있는 대응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약공업회 대응

2000년 7월 협회내에 「지속적농업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농약 방제에 관한 각 도도부현의 연구 추진상황 등에 대해 협회의 지방 네트워크를 활용, 「화학농약 사용 저감 등의 실시상황에 대한 앙케이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감농약 사용에 대한 업계의 대책을 검토하는 등의 성과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쳤다.

농약의 생태영향평가 등에 관한 제반 문제 대응

환경성은 오래전부터 농약의 생태계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각종조사들을 실시, 검토해 오고 있다. 1998년 2월부터는 학식, 경험자로 구성된 「농약생태영향평가검토회」를 설치, 1999년 1월에는 「21세기 일본 농약생태영향 평가 방향에 대하여(중간보고)」를 냈으며 결과를 근거로 「중간보고」의 내용을 한층 충실히 하여 시책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검토가 거듭되고 있다. 농약의 생태영향평가 등에 관한 제반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1일 「농약등록보류기준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 대응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약과 내분비교란물질 문제

농약과 내분비교란작용과의 관련

현 단계에서 내분비교란작용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현재 일본을 포함, 세계적으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성은 2001년 11월에 우선 공포한 「외인성내분비교란화학물질 문제로의 환경청의 대응방침에 대하여-환경호르

몬 전략계획 SPEED 98-」을 개정하고 내분비교란작용을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로서 65개의 물질(군)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으나 개정판에 있는 이러한 물질에 대해 「내분비교란작용 유무가 꼭 밝혀진 것은 없음. 철저하게 금후 우선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여러번 「환경호르몬」의 오해를 초래해 오고 있는 상황에 있다」등을 명기했다.

농림수산성 및 농약공업회 대응

일본에 등록된 농약은 등록에 필요한 번식시험 및 초기형성시험 등에서 생식 및 차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즉시 그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농림성의 견해이다.

협회 내에 「내분비교란물질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성에 △리스트에서 현행 등록농약 삭제 △삭제불가의 경우 내분비교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리스트 수록 화학물질의 내분비교란작용의 정도, 과학적근거에 기초하여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농림성에 대해서 「SPEED 98」에 게재된 것을 가지고 당해물질(현행 20등록농약)이 내분비교란물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그 취급에 충분한 배려를,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각 현의 방제기준에서 당해 농약이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농약빈용기 등의 적정처리

관련법률 개정

농약빈용기는 개개의 농업자 단계에서는 배출량이 적고 배출장소가 광범위하게 산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는 동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수집, 처리시스템 구축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각지에서 다양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성 및 농약공업회 대응

농림수산성에서는 1999년도부터 몇개 현에서 「잔여농약 등 처리시스템 확립사업」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른 농약빈용기 회수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 12월 관계단체에 의한 「농업생산자재 적정처리전국추진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농약공업회는 이 협의회의 「농약적정처리부회」 회장 역할을 담당, 현장담당자에게 매뉴얼 「농약빈용기의 적정처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절차」를 작성,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농협 및 농약시판상에 배포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만-TCPIA



농업생산 개황

2001년 농산품 생산액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WTO가입으로 인한 휴경지 확대정책으로 1천6백8억NT\$로 전년대비 2.69% 감소하였다. 이중 과일 이 36.15%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채소 24.18%, 쌀 20.42%, 특용작물 6.73%, 잡곡 4.58% 및 기타작물 7.31% 순이다.

농약관리 개황

2001년 신규 등록농약은 14종, 적용확대 품목은 31종, 안전제형으로 전환된 품목은 2종이다. 현재 대만에서 사용권장하는 농약은 총 5백47종(유효성분 3백85종)이며 이중 살충제는 1백94종, 살균제 1백88종, 제초제 96종, 살웅애제 30종이며 기타제가 39종이다. 농약 등록건수는 5천22건(혼합제 포함)으로 살충제가 2천6백39건, 살균제 1천3백50건, 제초제 5백64건, 살웅애제 2백76건이며 기타 1백93건이다.

농약품질검사 농약관리법령에 근거하여 農政單位에서 감독, 검사, 폐지를 실시한다. 2001년 각 농약공장과 시판농약의 검열건수는 1천55건이며 위조농약 폐지 57건, 라벨 부적합 및 위법 광고 8건, 불법판매업자 4건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농민의 농약사용 관리농약안전사용 강연을 150회 실시하고 6월을 「농약안전사용의 달」로 정하고 TV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병해충방제지침서를 4만권 발행하였다. 1993년부터 「吉園圃」농약안전사용마크인증제도를 실행, 현재까지 1천49개소의 채소 생산지에서 인증을 획득하였고 농약안전사용 시범면적은 5천ha이며 농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잔류농약 검사 체계 농약에 대한 적정사용과 완전한 농약잔류검사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농약잔류화학물검사소 14개를 설립하고 국내 채소 과일의 출시전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화학검사법에 의한 검사건수는 1만2천3백52건이며 불합격건수는 2백건으로 합격률은 98.38%이다. 기타 생물화학검사법에 의하여 검출된 건수가 9만9천9백39건으로 안전사용에 대한 농민들의 교육협조가 이루어졌다.

식물방역 검역 2001년 작물병해충 진단건수는 1천5백15건이다. 이중 병해가 53.23%로 제일 많으며 해충 20.34%, 기타 21.33%, 생리장애 5.10%이다. 작물병해충종합방제기술 보급면적은 수도가 91.4%이며 방제면적은 21만4천6백45ha, 과수 3.1%로 방제면적 7천3백92ha, 야채는 2.6%로 방제면적 6천1백55ha, 잡곡방제면적은 4천7백ha로 2.0%이다. 특용작물 방제면적은 2천ha로 0.9%를 차지한다.

농업 제애현황

2001년 13차례의 천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여 대만지역의 농업손실금액이 1백47억6천만

NT\$에 달한다. 그중 비교적 큰 피해는 7월 중순의 도라지태풍과 9월중순의 나리태풍이며 태풍과 폭우로 인한 손실만 1백29억5천만NT\$이다.

농약 생산·판매현황

2001년 대만지역의 농약제품의 총 판매량은 4만1백73톤(성분량 8천5백25톤)으로 전년대비 9.03% 증가하였으나 성분량으로는 실제 5.45% 감소했다. 판매금액은 52억1천3백만NT\$로 전년대비 3.98% 감소하였다. 이중 중국제품이 77.78%, 수입제품이 22.13%이다. 종류별로는 유효성분 사용량이 제초제가 42.49%로 제일 많으며 살충제 33%, 살균제 20.7%이다. 판매금액으로는 살충제가 40.55%로 제일 많으며 제초제 26.99%, 살균제 26.82%순이다.

2001 대만지역 농약원제품 사용통계

종류별	성분량(톤)	점유율(%)	금액(백만NT\$)	점유율(%)
응애약	217	2.55	134	2.57
살균제	1,765	20.77	1,398	26.82
제초제	3,622	42.49	1,407	26.99
살충제	2,813	33.00	2,114	40.55
기 타	108	1.27	160	3.07
합 계	8,525	100.00	5,213	100.00

2001년 대만지역의 농약수입총액은 56억7천2백만1천NT\$이며 이중 56.62%가 농약원제, 30.01%가 농약원제품, 13.37%가 합성원료이다. 수입국별로는 미국 1위, 일본, 독일, 프랑스 순이다. 수출총액은 26억5천8백35만8천NT\$이며 일본이 제일 많고 다음이 태국이다.

관련 행정법령 동향

□ 環境保護署 2001년 9월 「제3류독성화학물질위해예방 및 대응요령」, 10월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시행세칙」, 11월 「토양 및 지하수오염비용-화학물질종류별 과징내역 및 과징금 기준」 등 공고하고 과징 예정된 20개 농약종목에 대하

여는 Endosulfan만 오염비용을 과징기로 했다.

□ 2001년 12월 環境保護署에서 공고한 물품 및 용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수 및 폐기처분 한다.

□ 2001년 농약위원회에서 사용방법 및 적용범위 확대 농약 중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노지실험법규 7종, 15종 농약제품 생략.

□ 2001년 농약위원회에서 비준한 농약등록증은 33종이며 그중 신규등록이 14종, 17종 농약제품 생략

□ 2001년 농약위원회에서 12종 신규농약의 일반명칭을 공고함

□ 2001년 3월 농약위원회에서 삭제, 공고한 품목은 Binapacryl 25%수화제, 원제와 제품을 포함하여 2001년 7월부터 제조,수입,수출,판매와 사용이 금지됨.

□ 2001년 8월 농약위원회에서 53종 극독제품 농약 명칭을 수정, 공고. 살충제 44종, 제초제 4종, 살선충제 3종, 응애약 1종, 혼합제 1종임.

□ 2002년 7월 농약위원회에서 추가 공고한 농약 제품중 기타성분의 Xylene용제의 함량을 10% 이내로 규제하며 2003년 1월부터 실시함.

□ 2002년 7월 농약위원회에서 공고한 chlorothalonil의 관리규정의 내용을 보면 △ 2003년 1월부터 노지실험 신청 및 허가증 등록 신청 접수 △원제의 불순물중 HCB의 함량이 2003년 1월1일부터 0.03% 이내로 규제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 0.004% 이내로 규제 △신규등록신청자는 비교적 안전한 제형인 SC나 WDG 등을 신청해야 하며 WP제형을 신청시는 수용성봉지여야 함.

□ 2002년 7월부터 농약위원회에서 methyl bromide의 신규등록과 등록연장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2003년 1월 1일부터 기존 등록증을 취소하며 2003년 4월1일부터는 농업용도에 한한 판매와 사용을 일체 금지함. **농약정보**